

요약

생명보험 전속설계사와 손해보험 전속설계사의 교차모집 등록률은 2022년 말 기준 각각 82.2%, 17.9% 임. 생명보험업계 불황이 지속되면서 생명보험 전속설계사가 손해보험 교차모집설계사로 등록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임. 전속설계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회사 인지도나 상품경쟁력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일부 보험회사에 대한 쏠림현상도 나타남. 교차모집제도는 설계사의 소득여건 개선에 일부 기여하나, 판매자의 잦은 이탈에 따른 모집질서 혼란 가능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임

- 교차모집제도는 특정 보험회사를 위해 모집하는 보험설계사가 해당 보험회사가 속하지 않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한 개의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¹⁾ 2008년 8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음
 -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시 방카슈랑스제도 시행과 통신판매 증가에 따른 설계사의 소득감소 보전 및 일괄구매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비자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교차모집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실제 시행은 2008년 8월 이루어짐

〈표 1〉 보험설계사 인력 현황(2022년 말 기준)

(단위: 명)

생명보험 산업			손해보험 산업			GA 소속 설계사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설계사	등록설계사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설계사	등록설계사	
59,903	17,791	77,694	99,426	49,269	148,695	245,415

- 주: 1) 생명보험산업의 교차모집설계사는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전속설계사가 특정 생명보험회사 상품판매를 위해 등록된 경우를 의미함
 2) 손해보험산업의 교차모집설계사는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전속설계사가 특정 손해보험회사 상품판매를 위해 등록된 경우를 의미함
 3) 등록설계사=전속설계사+교차모집설계사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국내 보험산업의 교차모집설계사 수는 2022년 말 기준 총 67,060명으로,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에는 연평균 9.4% 감소함(〈표 1〉, 〈표 2〉 참조)
 - 2010년대 중반 복합영업점포 확대 전략 시행으로 생명보험 교차모집설계사 등록인원은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연평균 4.1% 증가하였으나, 최근 들어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교차모집설계사 등록인원이 크게 감소함
 - 최근의 손해보험 교차모집설계사 등록인원 감소는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형 GA 설립, 생명보험업황 악화에 따른 생명보험 전속설계사의 GA로의 이직, 제3보험 도입 등 업권 간 보험상품 경계 모호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음

1) 「보험업법」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전에는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보험회사만을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한 '일사전속주의' 규제를 적용받아 옴

〈표 2〉 기간별 보험설계사 인력 연평균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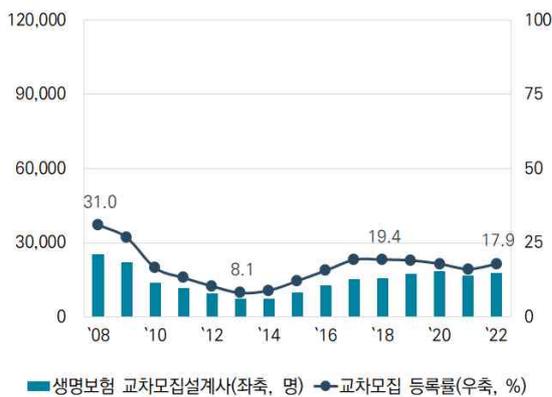
(단위: %)

기간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설계사			GA 소속 설계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계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계	
2013~2018	-6.8	-2.3	-4.9	16.1	2.6	4.1	6.6
2018~2022	-11.0	5.6	-2.4	3.5	-12.5	-9.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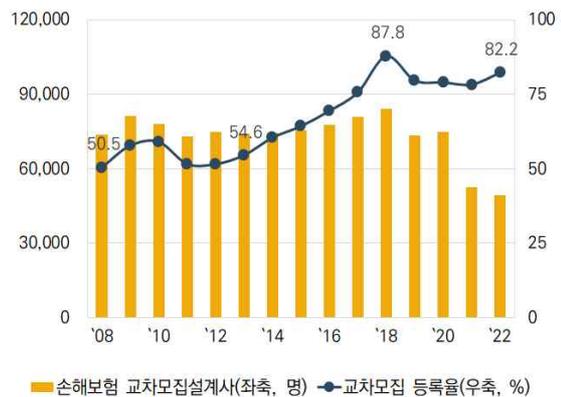
주: 연평균증가율(CAGR)임

- 생명보험업계 불황 지속으로 생명보험 전속설계사가 손해보험 교차모집설계사로 등록하는 비중은 증가 추세인 반면, 상대적으로 손해보험 전속설계사의 생명보험 교차모집 등록률은 상품판매의 어려움 등으로 낮은 수준임
 - 생명보험 교차모집설계사는 2022년 말 기준 각각 17,791명으로, 손해보험 전속설계사의 17.9%가 생명보험회사의 교차모집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음(〈그림 1〉 참조)
 - 손해보험 교차모집설계사는 2022년 말 기준 각각 49,269명으로, 생명보험 전속설계사의 82.2%가 손해보험회사의 교차모집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음(〈그림 2〉 참조)

〈그림 1〉 생명보험 교차모집설계사 인력 및 등록률 추이
(단위: 천 명, %)



〈그림 2〉 손해보험 교차모집설계사 인력 및 등록률 추이
(단위: 천 명, %)



주: 생명보험 교차모집 등록률=(생명보험 교차모집설계사 수/손해 보험 전속설계사 수)×10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손해보험 교차모집 등록률=(손해보험 교차모집설계사 수/생명 보험 전속설계사 수)×10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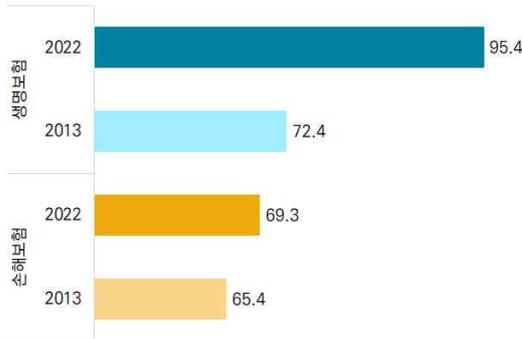
- 현행 교차모집 운영방식은 전속설계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를 직접 선택하여 보험협회에 등록하는 '설계사 선택 방식'이며,²⁾ 특히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설계사들의 특정 교차모집보험회사에 대한 쏠림현상이 높게 나타남
 - 손해보험 전속설계사의 교차모집 생명보험회사 선택은 특정 회사로 집중되어 있으나, 생명보험 전속설계사의 손해보

2) 교차모집제도의 운영방식에는 원보험회사(현재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 교차모집 보험회사(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교차모집설계사(교차모집을 하고자 하는 보험설계사) 간 선택 및 제휴방식에 따라 '설계사 임의선택방식', '회사 간 대리점방식', '업무위탁방식', '모회사방식' 등이 존재함(정세창·안철경(2008), 「교차모집에서 설계사의 보험회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보험개발연구』, 보험연구원)

험회사 선택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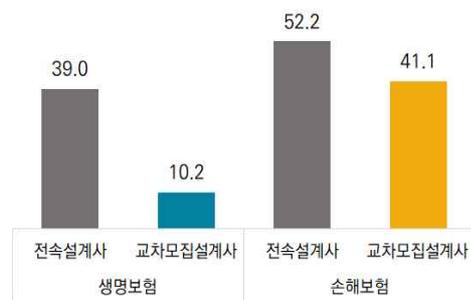
- 특히, 대형사 및 계열사 보유 보험회사에 대한 교차모집인력 집중도가 높는데, 이는 전속설계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인지도, 상품경쟁력, 수수료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음

〈그림 3〉 교차모집 보험회사에 대한 인력집중도(CR3)
(단위: %)



주: 교차모집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인력 기준) 상위 3개 사 합계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4〉 전속설계사와 교차모집설계사의 정착률 비교
(단위: %)



주: 2022년 기준 13회차 정착률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교차모집제도는 설계사의 소득여건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하나, 그 수준이 미미하여 전속설계사에 비해 정착률이 낮고 업권 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생명보험 전속설계사와 손해보험 전속설계사가 교차모집을 통해 거둬들인 월평균 소득³⁾은 2022년 기준 각각 30만원, 6.2만원 수준임
- 생명보험 교차모집설계사와 손해보험 교차모집설계사의 13회차 정착률⁴⁾은 2022년 기준 각각 10.2%, 41.1%로 전속설계사보다 낮음(그림 4) 참조
 - 설계사에 대한 보상체계는 직무만족도와 이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이직률이 낮음⁵⁾

○ 설계사의 잦은 이동은 부당한 계약전환이나 유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판매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과 회사의 안정적 현금흐름 관리를 위해서는 교차모집설계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

- 설계사의 잦은 이직은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이며, 설계사 이탈 후 보험회사의 고객관리 수준에 따라 보험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보험회사는 교차모집설계사 지원 및 관리 강화를 통해 교차모집 채널의 양적·질적 성과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교차모집제도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육성 및 관리의 권한과 책임은 기본적으로 초기에 등록된 보험회사에 있고 교차보험을 위해 등록된 보험회사는 단순히 모집위탁만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볼 수 있음

3) 월평균소득=모집수수료/교차모집보험설계사 인원

4) 13월차 설계사 등록정착률은 보험설계사로 새롭게 등록한 후 1년 이상 정상적인 모집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을 평가하는 지표로, 다음과 같이 산출됨. 13월차 설계사 등록정착률=(산출월 현재 정착등록인원/산출월 기준 전년 동월 신규등록인원)×100

5) 김동겸·정인영(2020), 「설계사 정착률 현황과 보험회사의 과제」,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